

# 150만명 검찰개혁 촉구... '촛탄핵' 이후 최대집회

서초 대로 1.6km 가득 메워  
광주·대구·부산 등 버스 상경  
“검찰 적폐 청산 2차 촛불혁명”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는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 장관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같은 시간대에 도로 바로 건너편에서는 보수를 표방한 단체들이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소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반포대로 서초역~서초경찰서 인근 누에다리, 서초대로 서초역~교대역 구간 등 총 1.6km를 가득 메운 집회 참가자들은 '조국 수호', '검찰 개혁'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와 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적폐'로 규정하며 이를 청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최 측은 “검찰과 언론이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를 피의자로 몰아가고 있지만 이들은 사실 피해자”라며 “진짜 공동정범은 70년간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며 직권을 남용하는 검찰과 그들이 흘린 정보를 받아쓰는 언론”이라고 주장했다. 발언대에 선 백은중 서울의소리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배반하고 ‘검찰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촛불이 1차 촛불 혁명이었다면, 검찰 적폐를 척결하는 이번 촛불은 2차 촛불혁명”이라고 말했다.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발언도 이어졌

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은 무죄다. 조 장관의 딸은 공부를 잘한 모범생이었고, 사모펀드는 익성 펀드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조국을 때려 문재인 대통령을 망들게 하지는 것이 저들의 작전”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의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 수백 명을 동원해 여대생 수사한 게 겨우 이 정도라면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 정치 검찰임을 자인하고 내려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고 있는 정치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시작 1~2시간 전부터 광주·대구·대전·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해 상경한 참가자들이 근처 도로에 내려 집회에 합류하는 모습도 보였다. 해가지고 어두워지자 참가자들은 휴대전화 플래시나 LED 촛불을 켜서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다.

집회 막바지에 주최 측이 대검찰청 벽에 밤 프로젝터로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정치검찰 OUT’ 등의 문구와 노무현 전 대통령, 문 대통령, 조 장관 등의 얼굴을 띄우자 참가자들은 일제히 큰 소리로 환호했다.

아내와 함께 집회에 참가한 박모(48) 씨는 “검찰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을 보고 분개해 집회에 나왔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시위 때도 참여했는데, 그때보다 준비는 덜 되었는데도 있었지만 질서도 잘 지키고, 메시지도 뚜렷하게 전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약 150만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식적인 추산 인원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한 때 서초역 인근의 휴대폰 데이터 통신이 끊겨 동영상이 원활하게 재생되지 않거나 메시지가 늦게 도착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대편 도로에서는 오후 5시경부터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연대 주최로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맞벌 집회’가 열렸다. 경찰은 집회 현장 인근에 61개 중대 3천200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서울중앙지검과 대법원 정문에 폴리스라인을 치고 양 사위대 간 충돌을 막았다.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후 5시경부터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연대 주최로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맞벌 집회’가 열렸다. 경찰은 집회 현장 인근에 61개 중대 3천200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서울중앙지검과 대법원 정문에 폴리스라인을 치고 양 사위대 간 충돌을 막았다. 집회에 참여한 보수단체 회원과 시민 1000여명(주최 측 추산)은 피켓을 들고 서울중앙지검 쪽을 향해 “조국을 구속하라”, “문 대통령을 탄핵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연합뉴스

## 與 “檢개혁 민심, 촛불로 확인”... 한국당 “숫자 부풀려 여론호도”

촛불집회 규모·의미 격렬 공방  
민주, 검찰개혁 드라이브 시도  
한국당 내달 3일 범보수 집회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놓고 29일 여야가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국민적 반발과 검찰 개혁에 대한 민심이 확인됐다고 의미를 부여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자 지지층이 집회에 나서는 등 여론이 전방위적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집회 규모에 대해 민주당은 “200만 촛불”에 이어 “마음속 촛불까지 하면 2천만”이라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그것해야 수만명 불과하며 여론 호도를 위한 숫자 부풀리기”, “내로남불·조작정권”이라고 반박하면서 공방이 더욱 격화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전날 서초동에서 진행된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에 예상을 뛰어넘

는 인원이 참석하자 한껏 고무된 분위기를 보였다.

검찰 개혁을 차단하기 위해 검찰이 조 장관을 정조준해 수사하는데 대한 국민의 분노가 대규모 집회로 표출됐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재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제 20만 국민이 검찰청 앞에 모여 검찰개혁을 외쳤다”면서 “검찰은 이제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국민의 염원을 담아 검찰개혁·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주말에 서초동에 10만개의 촛불이 켜진다고 했던 지난 26일을 발원지 거문, ‘제 말이 많이 부족했다. 아마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국민들의 마음속에 켜진 촛불까지 합치면 2000만일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검찰개혁이란 국민의 뜻은 훨씬 더 단호하고 분명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 촛불집회 수준의 민심 결집을 통해 검찰 개혁을 책임자인 조 장관을 사수하고 조국 정권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 계산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검찰 개혁 촉구 촛불집회를 조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압력으로 규정하고 여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이만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범죄 피의자 조국 일가를 향한 현 정권의 압박이 이성을 잃고 있다”면서 “자신의 명예에 드는 집회는 국민의 뜻, 마음에 안 들면 정치공세로 몰아가는 행태가 내로남불, 조작정권의 행태”라고 말했다.

보수 야권에서는 집회 규모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으며 일각에서는 참석자들이 ‘촛불 흥취병’으로 지칭하면서 집회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집회 참석인원에 대해서는 사진 자료와 이른바 ‘페르미 추정법’ 등 집회 인원 추정방식까지 동원, 집회 주최 단체와 여당이 숫자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200만이라 주장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완전한 숫자 부풀리기”라면서 “(인근에서 열린) 서초구 축제 인원은 한 7만명 정도이며 집회 참석인원은 5만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정경심 이번주 소환될 듯... 윤석열 “검찰개혁 국민 뜻 받들 것”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등 여러 의혹에 연루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이번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고형근 부장검사)는 정 교수 측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은 정 교수 출석 일정이 확정되더라도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에 취재진 수십 명이 상시 대기 중이어서 출석 장면이 언론에 공개될 전망이다.

정 교수는 이번주 초반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정 교수가 출석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

빗에쿼티(코링크PE)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씨의 구속기간이 다음달 3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투자·운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조사를 재판에 넘기기 전에 정 교수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정 교수는 제기된 의혹이 방대한 만큼 두 차례 이상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전날 서초동 일대에서 대규모로 열린 검찰개혁 집회와 무관하게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될 것이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기존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검찰개혁에 관한 검찰총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내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왔고 변함이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 장관 가족 의혹 수사를 밀어붙인다는 일각의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취임 전부터 검정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국회에 제출된 검찰개혁 법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연합뉴스

대한민국대표종합여행기업

# 롯데관광 LOTTE TOUR

대표전화 1577-3000  
광주지사 1688-1104

한국표준협회 선정 2019 한국서비스대상 종합대상 2018 KS-COI

클러스터품질지수 여행사 부문 1위 수상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중심경영(CCM) 우수기업인증

세계권위 여행전문지 TTG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여행사상 18년 연속수상

## 산티아고 순례길

국내 유일 대한항공 특별전세기 산티아고로 가는 가장 빠르고 편한 길!

**최대 50만원 할인**

1차 프로모션 마감임박 (~9/30까지 예약시)

**동반자 할인 40만원 할인**

**추가 할인(4명 이상) 10만원 할인**

11/9   11/16   11/23 [단 3회 출발]

48년의 노하우가 만든 롯데관광만의 혜택!

**4성급 호텔**

알베르케 숙박 X

**전문 인솔자 동행**

순례길 전문 가이드

**전용차량 대기**

배낭없는 편안한 여행

산티아고 순례길 + [스페인 3대도시] 9일

순례길에 집중하고 싶다면

5일  
간기

3,690,000원

+90유로 | 선택관광 없음

• 목시아/산티아고/피니스테레

산티아고 순례길 + [스페인 북부 8대도시] 9일

순례길을 체험과 관광을 동시에

4일  
간기

3,790,000원

+90유로 | 선택관광 없음

• 루고/오비에로/산티아고

스페인 북부 12대도시 + 프랑스 길 9일

포르투갈 8대도시 + 포르투갈 길 9일

순례길 맛보기 & 관광 집중 코스

2일  
간기

3,890,000원

+90유로 | 선택관광 없음

• 리스본/산티아고/피니스테레

가견포함내역: 크루즈 선실료 및 항공세, 식사요금 등 필수 경비 포함 **가이드/기사경비**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lottetour.com 참고] [안전경보단계] ●여행유의 / ●여행자제 / ●참수권고 / ●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비자] 필요요 하는 일부 선택경비(관광) 있음/없음 상용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롯데관광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여행경비의 예약금 가산계좌로 입금받고 있습니다. ●종료구성: 일반여행업 제4678(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롯데관광개발주) ●일반여행업 영업정보보험 10억원 가입 ●기타여행 상시에 따른 보험보험 5억원 가입 ●여행보험차리비: 1589-9992 ●여행준비지: 부산항/속초항 ●최소합일 10명 ●크루즈 2인 1실 사용(일부객실 제외) ●교통편: 항공, 버스, 크루즈(선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 열차, 임차된 숙박 등은 관세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